

개척교회 파송식 및 창립예배



2011년 8월 14일 주일 3부 예배에서 개척교회인 J주님의교회에 파송되는 분들을 위한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오후 4시에는 교회당 안팎을 가득 매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J주님의교회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jchurch.or.kr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5 정림빌딩 2층 / 02-443-2046)

늘 채워주심에 감사 (感謝)

_ 주님의교회 장학금으로 한학기를 마치며

멀리 있는 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 듯, 가끔은 그렇게 서서 그리워 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어 닿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무척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진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학기를 마치고 나서야 전하게 되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2011학년 1학기 주님의교회에서 주신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장신대 교회음악학과 이세익입니다. 지난 방학 때 학비로 고민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항상 어렵게 채워 주셨듯이 이번에도 주님의 손길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주시는 장학금 소식을 듣고 바쁘게 움직여서 서류를 준비하고 간절했던 시기였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던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감사함과 기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신 주님의교회의 손길 덕분입니다.

저로 하여금 찬양의 기쁨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더욱 힘을 붙여 넣어주시는 것을 주님의교회 성도님의 고마움 더욱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저의 달란트는 아직 너무나도 보잘 것 없고 조그마한 모습이지만 저의 작은 모습까지도 사랑하시어 저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끊이지 않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교회 성도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011. 6.13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4학년 이 세익 드림.

교회소식 이모저모

청소년목회원 뮤직아카데미 주최 찬양 워십댄스 캠프

- 일시: 2011. 8. 1 ~ 3
- 장소: 주님의교회 소년부실, 초등부실, 소예배실
- 주제: Turn it around(시 30:11)
- 프로그램: 워십댄스, 예배, 발표회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목회원에서 워십댄스 캠프를 주최하였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FL 워십댄스팀과 함께 연합하여서 70여명의 학생들과 40여명의 교사들이 'Turn it around'이라는 주제로 오후에는 워십댄스를 배우고, 저녁에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하나님 주신 손과 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은혜로웠다고 한다. 단순히 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작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배우고, 춤을 통한 예배의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교회 내 소예배실에서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배웠던 워십댄스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수료식을 가졌다. 또한 고등부에서는 10여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베트남 비전트립에 필요한 워십댄스를 배우기도 했다.

- 20Plus LETS(예비리더교육) 2기 수료



20Plus 젊은이공동체에서는 LETS(Leadership Education & Training School) 2기 훈련이 5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LETS 훈련은 20Plus 공동체에서 2011년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설한 리더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LETS 훈련은 8주 동안 9강에 걸친 강의와 독서과제,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훈련, 암송구절, 새벽기도 실습 등의 훈련을 거쳐서 14명의 지체들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7월 10일 젊은이예배 때 이루어진 수료식에서 지체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나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예비리더들 파이팅!!

< 이정민 전도사 >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生命(생명)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급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_ (베드로 전서 3장 10절 ~ 11절)

8월의 주제는 생명인데 이처럼 귀한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줄 믿으며 생명의 의미를 풀어 보자.

辭典(사전)에서는 ①목숨. ②사물을 유지하는 기간 ③사물의 핵심 ④어떤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질 ⑤탄 존재와 구별되는 생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추상적 활동으로 정의 하였다. 漢字의 字源을 풀어보면

★生(날 생, 살 생)은 象形文字(상형문자)로써 식물의 줄기가 땅에서(一) 돋아

나(1)상상하게(ノ) <빠질 별,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함> 뻗어가는 (二)모양을 나타낸 문자이다. 이처럼 生은 식물을 상형화 했으므로 “식물이 자라남”은 生長(생장)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자라남”은 “어른이 되다”의 뜻이 있는 成長(성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命(목숨 명)은 말하다의 의미를 지닌 口(입 구)와 명령하다의 뜻이 있는 令(하여 금령)의 합자이므로 『上司(상사)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니 내놓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 목숨이다』라고 풀이 된다.

★令(하여 금령, 명령할 령)은 모이다라는 뜻을 지닌 集(모일 집)의 변형체인 令(모일 집)에 무릎을 꿇다는 의미의 叩(병부 절)을 결합하여 『많은 사람을 모아 무릎을 꿇리고 명령한다』로 풀이할 수 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_ 레 19:2

통 권 _ 제 289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9월 4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낮은 곳을 향한 주님의교회 선교사역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는 길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계는 넓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 사역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 편집자 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각자 텐트를 치고 누웠으나, 밤이 되고 새벽이 되자 추위와 비바람으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통성 기도 시간에는 모두들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키르기스스탄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 온 최재호 집사의 간증이다. 갑작스런 돌풍으로 집회용 대형 텐트가 날아갈 것 같은 극한의 상황에 이르러, 모두 텐트 중앙 기둥을 붙들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는 간절한 고백이 이어졌다. 윤○○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키르기스스탄에 어와나기법을 전해 주기 위해

두 달 동안이나 준비했던 활동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시67:1~3)라는 말씀은, 선교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임을 새삼 일깨운다.

주님의 행적을 따르는 소중한 사역
키르기스스탄과 같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으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라는 말씀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주님의교회의 선교 사역은 크게 국내선교, 북한선교, 해외선교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다. 국내선교는 의료팀, 법조팀, 스포츠선교팀, 농

어촌선교팀, 도시개척교회선교팀, 군경선교팀, 교정선교팀, 주한외국인선교팀, 이미용선교팀, 기관선교팀, 국내선교행정팀, 유소년축구팀, 영어지역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내외국인들을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선교는 하나원팀, 새터민팀, 북한교회준비팀, 북한마을돕기팀, 선교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땅에 정착하는 새터민들을 지원하고 전도하고, 북한에 의약품 보내고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선교는 비전트립팀, 동남아선교팀, 중앙아시아선교팀, 남미유럽선교팀, 선교사증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선교사를 발굴, 훈련하고, 파송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비

전트립팀은 단기선교팀의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도하며, 병을 치료한 것을 본받아 각 선교지를 격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다.

유럽에서 남미까지,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주님의교회가 파송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는 2011년 현재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헝가리, 코스타리카, 북한, 파라과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이고, 총회순회선교사인 서정운 목사를 포함하여 12여 가정이 활동 중이며, 해외선교팀의 30여 명의 성도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비전 트립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에는 연령대 별로 비전 트립 팀이 구성되어 케냐, 헝가리,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의 선교지를 방문, 지원하고 왔으며, 9월 이후에도 청년부에서 베트남을, 장년부에서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예정이다.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공광승 목사는,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면서, “선교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고, 선교지에 대한 문화, 언어, 상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가시적인 선교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미 2008년에 ‘선교사규정’을 만들어, 선교 정책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복무, 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체계가 아무리 잘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일 터이다. “교회 구성원이 각자 위치에서,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해외선교행정총괄팀장 변춘석 안수집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 편집부 >

주간 목회력

<성찬주일> 9. 4 (주일)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8. 28(1차) / 9. 4 (2차) 주일오후4시
중예배실

<향존직 후보자 추천1차 투표>
9.4(주일) 오전 8:30 ~ 오후 3:00
지하 당회원실 옆
<수요 어린이 영어예배> 9.7 (수)부터

<가을학기 양육클래스 개강>
9.6(화)부터
<가을학기 유소년 축구교실 개강>
9.4 (주일) ~ 11.27(주일)

Kenya_케냐



케냐팀은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케냐수도인 나이로비를 거쳐 나이로비 근교와 마사이족의 거점도시인 나룩을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사역을 하였다. 의료사역이 중심이었던 만큼 의사, 간호사의 적극적인 참가가 기대되었지만, 의사 1인과 아마추어 간호사 10인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의사이신 김기경 집사님이 400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 후에 과로로 인하여 거의 쓰러질 지경까지 되었다. 또한 슬럼가의 탁아소 한 곳과 두 곳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교육도 하고 함께 놀이도 하였으며, 신학대학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교제하였으며, 케냐 현지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나무심기 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케냐는 문명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고, 수도인 나이로비는 높은 빌딩을 자랑하며 질 좋은 상품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도시 밖은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과 축복에 목말라 하는 곳이 많았다. 케냐는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영어를 사용하며 치안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케냐에서 만난 목사님과 장로님들, 신학대학 총장님을 위시한 교수님들, 탁아소와 고아원의 운영자들, 맑은 눈의 아이들을 접하고 느낀 점은 그곳이 우리의



기도와 방문과 관심에 목말라 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역팀은 '케냐 그룹(Project Group for Kenya)'을 만들어 내년에 모일 사역팀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도 케냐 비전트립팀이 구성되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망이다. 활동, 후원, 기도사역 모두 가능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역은 이원재, 진은현 선교사님의 동역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알찬 결실이 있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사역과 학업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소망한다.

〈홍완식 집사〉

Kyrgyzstan_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 비전트립기간은 8월6일-14일까지였으며, 주된 사역목적은 윤○○선교사님의 요청사항인 어사연(어린이를사랑하는연합회)을 중심으로 한 어와나기법 전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기대하며 2달간의 준비를 마치고 현지에 도착하여 드디어 3박4일간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일부터 심상치 않은 우천으로 비슈겟수도를 벗어나 어느덧 이식쿨호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미 준비되어진 미군이 주고 간 대형야전텐트로 모여 반갑게 인사하고 모두를 각자 텐트를 치고 순조로운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고 새벽이 되자(체감기온 영상5도내외) 모두들 뜬 눈으로 밤을 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 비, 풍랑으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저녁, 통성 기도시간에 모두들 눈물콧물 흘리며 기도하는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키르기즈를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게 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돌풍으로 인해 배가 뒤집힐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와 무서워 말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이곳 호수가에서도 갑작스런 돌



풍으로 대형집회막사텐트가 날아갈 것 같은 상황으로 중앙기둥을 모두들 붙들고 있었을 때 많은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요일 황용환 집사 아버님의 소천으로 급하게 귀국할 수밖에 없을 때 모두들 기도하며 안타까워했으며 돌아와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없어 비슈겟에서 카자흐스탄 비자 없이 국경을 넘고 다시 알마티공항까지 현지목사님의 도움으로 인천까지 오지게 된 사연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재호 집사〉

Vietnam_베트남



〈장년부팀〉

베트남팀 장년부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버스로 3시간 쯤 가야하는 빈롱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로



세대차이가 있고, 청각장애우팀(6명) EM팀(영어 사역부로, 미국인5명)을 포함해 국적도 달라서, 애당초 화합이 어려운 멀티칼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집짓기사역과 의료사역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페이스페인팅, 풍선 아트와 선물(의류, 학용품)을 나눠 주고, 즉석 사진 프린트기로 사진을 찍어 주니, 너무너무 신기해 하였습니다. 식사할 때는 이미 국경도 없었고, 장애도 없었습니다. 서툰 영어도 거침없이 나왔고, 수화도 따라 하면서 우리는 서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학교나 인민 위원회에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어린이들과 공차기, 또 한쪽에서는 댄스곡을 크게 틀어 놓고 춤을 추면, 어느새 구름같이 몰려와, 따라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장애우들의 네일아트, 풍선만들기 및 문집사님의 '즉석사진'도 동시에 진행 되었습니다. 사역이 끝날 무렵, 인민 전선위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장학물품 전달식을 마치고, 위원장실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베트남어로 악보 없이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찬송을 부를 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치, 그곳에 공산권을 무너트리고, 하나님나라의 승전가를 부르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집사님 말씀대로, 이번 여행처럼 기쁘고 잊지 못할 감동은 처음입니다.

〈김진수 집사〉

〈고등부팀〉 8월7일부터 8월13일까지 고등부 비전트립 팀은 베트남에서의 집짓기 사역을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향하게 하신 뜻을 찾아서 베트남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 한 달 소득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만원입니다. 이 정도의 수입은 가족이 먹을 쌀과 간장밖에 살 수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무너진 집을 다시 지을 엄두도 못 내고 지붕조차 없고 여기저기 무너진 집에서 살아오던 가정이었습니다. '깁' 아저씨 댁은 아저씨 부부와 세 남매가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고등부 학생과 또래인 18살 학생 '픽'이 있어서 특히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같은 또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며 본인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사함과 연민을 함께 느끼며 또 '픽'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은 베트남 현지 사람들이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축복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보냈던 일주일의 현지인들에게도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저희 고등부에게도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하심을 깨닫게 해주었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 중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픽"에게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전하는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강하나 청년〉



Hungary_헝가리



헝가리팀의 7월17일부터 25일까지 8박9일간의 짧고도 긴 사역이 은혜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

었지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온전히 품고 헝가리 땅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연합 수련회, 집시시설, 노숙자시설, 교도소 그리고 세 곳의 양로원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우리의 공연과 사역에 관심을 보여주었고 동일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떠나기 전 가장 두려워하던 교도소에서 보았던 수감자들의 너무나 신실한 예배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곡을 각자의 언어로 찬양할 때,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드릴 때, 각자의 언어로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서로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인종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한 지체된 사람들임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는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 신앙의 선배 된 나라지만 오랜 정치적 탄압과 공산주의의 억압으로 인해 교회 출석률이 높지 않고 못 대중의 신앙적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목회 사역을 도맡아 하



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연합하여 협동하는 교회 공동체가 사회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로서 그 땅의 그리스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헝가리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윤기 청년〉

하늘씨앗(영아부) 여름성경학교



하늘씨앗 영아부는 지난 7월 3일 “꿈쑥쑥 비전아이 V(브이)”라는 주제로 신나고 즐거운 여름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아기들은 그 걸음으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라는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말씀 속으로 들어가 온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고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비전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자라나심을 표현한 그림성경책 만들기과 키 쑥쑥, 지혜 쑥쑥, 믿음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한 “쑥쑥이인형” 만들기를 했던 말씀여행 시간,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린 “하나님 말씀~ 들려줘요” 교사 인형극, 그리고 마지막 히든카드(hidden card)로 ‘비전아이 교회가기, 딸랑딸랑 비전아이, 땀땀 비전아이, 꿈쑥쑥 비전아이’라는 네 개의 코너에서의 특별활동이었습니다. 영아부 아기들의 생애 첫 여름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 이희영 전도사 >

썩트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유아부 썩트네에서는 지난 7월 9일, 10일 “꿈 쑥쑥 비전아이 브이(V)”라는 주제로 2011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나는 비전맨~브이!!” 찬양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썩~두 손을 모으고”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재미있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귀를 쫓~긋 세워 듣는 유아부 천사들. 성경학교를 맞이하여 특별히 준비된 순서가 있으니 바로 선생님들이 준비한 연극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이 귀여운 동물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큰 웃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센터학습 시간~칙칙~폭폭!! 신나는 기차놀이도 하고, 폴짝폴짝 뛰 어다니며, 엉금엉금 기어 다니며 재미있는 훌라후프 놀이를 했습니다. 맛있는 과자로 비전아이 얼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들고 기념사진 찰칵~!! “썩트네~썩터요~” 마라카스를 힘껏 흔들며, 가장 큰 소리로 신나게 찬양하는 유아부 친구들~게임센터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썩트네 선생님들은 오늘도 유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 김해나 전도사 >

2011년 교육목회원

담쟁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담쟁이의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찬양해요.”라는 주제로 7월 23일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양을 지키는 다윗,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구선 직접 다윗이 되어 사자로 부터 양을 보호하고, 골리앗과 대적하고, 악기를 만들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초콜릿을 만들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고 찬양하고 뛰고 만들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는 부모님들이 모여 계셨는데요. 성품학교 비두바로의 저자인 김옥순 대표를 모시고 “하늘에 뿌리박은 교육”을 주제로 부모학교가 열려 부모님들도 강의와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지식을 얻고 좋은 부모님이 되기로 눈물로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으로 풍선아트로 음식준비로 도와주신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기도로 동역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호진 전도사 >

포도나무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2011년 무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7/24~26, 2박3일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짐하는 ‘예.랑.나.랑. 성경캠프’라는 주제로 놀이와 영상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입체적인 성서학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를 배웠고, 밤에 이어진 선생님들의 재치 있는 그림자극을 통해 더 깊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날은 성경인물 중 ‘다니엘’과 ‘에스다’를 통해 ‘나는 누구일까?’를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와 ‘절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모습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눈에 아른거리고,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너무나 좋은 자연에서 그리고 기적과 같은 날씨 가운데 유년부 공동체가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유년부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년부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 정부활 전도사 >

햇살뜨락 (초등부) 여름캠프

"꿈을 향해 비상하여 빛이 되어서!" 라는 주제 아래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가평 드림아일랜드 레저타운에서 햇살뜨락 초등부 여름캠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묵상하고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나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원대한 비전을 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가진 지능의 강점과 장점을 알아보고, 그에 연관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공부해 보며 자신

이 진실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예배를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어린이들 각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어린이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변화된 아이들의 우렁찬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었던 캠프였습니다. 큐티시간에 어린이들이 발표한 아름다운 그림과 글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 햇살뜨락 초등부 어린이들의 간절한 기도이자 다짐이었습니다. < 문규호 전도사 >



아름드리 (소년부) 여름수련회

아름드리 소년부는 7월 24일부터 26일, 2박 3일 동안 양평 파라다이스 수양관에서 "Knowing the real Jesus!!"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왔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소중함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소년부가 되기 위해 총 4가지 주제(1. 예수님은 하나님 2. 예수님은 창조주 3. 예수님은 구원자 4. 예수님은 주인)를 가지고 조별로 성경모임 하는 시간을 가장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입식 성경공부가 아닌 게임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열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느끼는 예수님을 솔직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개울가에서 물놀이, 수련회장 근처에서 조별로 산책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학습 시간을 가졌고 예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임을 친구들이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 아름드리 소년부는 자연 속에서 자유를 누렸고, 끊임없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방윤주 전도사 >



Summer Camps

팝콘트리 (중등부) 여름수련회

2011년 팝콘트리 여름수련회가 7월 22~24일 팀비전센터(서울 은평구)에서 Turning Point "어두움에서 새소망으로"(행 3:19)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소년 코스타 강사이신 전경호 목사의 말씀집회와 권장희 놀이미디어 연구소 소장의 특강(게임 절제력을 키워 최고의 삶을 준비하라), 바이블 익스프레스, 바이블 뉴스페이퍼, 바이블 인물탐구, 미니올림픽과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등부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최성기 전도사 >



비전트리 (고등부) 여름수련회

비전트리 고등부는 7월 24~26일 2박 3일간 교회에서 '온 맘 다해'(마태복음 6:9-13)라는 주제로 몸, 마음, 삶 세 가지의 교육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몸은

사도신경을 통해, 마음은 주기도문을 통해, 삶은 묵상훈련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었고, 특별히 이번 교육은 경건훈련이 주된 훈련 시간으로 모두가 기도예배를 나누어 받아 저녁마다 집회 후 각자 1시간가량 자신의 기도 시간을 가졌다.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온 몸 임을 깨달아 헌신하고,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원하며, 날마다 묵상을 통해 온 삶을 다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한 비전트리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 주셨다. 이 은혜가 수련회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 '주님의 교회 비전트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놀라운 순간이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라." < 김주형 목사 >



2011 킹덤 비전 영어캠프 성공리에 마쳐

이번 킹덤 비전 영어캠프가 성공리에 마치게 된 소식을 영어사역부에서 기쁨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는 성도님들의 캠프를 위한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헌신적인 성도님들과 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와서 이번 캠프의 진행을 도와준 Footsteps Ministries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과의 협력관계로 인해 이 캠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영어캠프의 성공을 발판삼아 영어사역부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7일 수요일 7:30부터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주제로 수요일 어린이 영어예배를 시작합니다. 7세부터 11세 어린이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캠프와 어린이 영어 예배가 언어와 국적을 떠나 모두를 함께 축복하는 사역으로 여기 주님의 교회에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새뮤얼 웨딩턴 목사 >



Kingdom Vision Camp 2011 A Wonderful Success _ by Rev. Samuel Weddington

It is with great happiness and joy that the English Ministry reports that this year's Kingdom Vision ESL Camp was a wonderful success. It is thanks to the tremendous efforts of our church members associated with the camp that this year's camp was possible. So many of our dedicated members and volunteers faithfully joined us in the work of helping young children not only learn English, but learn English in an environment where they could also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We are especially thankful to Footsteps Ministries for traveling to Korea to help us carry out this camp. It is in partnership with them that this ministry has been made possible.

It is also with great hope and with great faith that the English Ministry steps out into a new form of ministry to build on the success of English Camp. Starting Wednesday, September 7th at 7:30pm, we will begin our children's English worship entitled "My Father's House." We invite children from the age of 7 to 11 to join us and worship God in English. Together, we hope that the English Camp and the children's English worship will begin to create a sustainable English ministry here at PCL that will bless people regardless of language and nationality.

God's blessings, Rev. Samuel Weddington

미자립교회 청소년초청 신앙캠프



유난히 비소식이 많았던 7월 한달, 7월28일 오후부터 7월 30일 토요일오전까지 청소년사역원 주최로 청소년신앙캠프가 주님의 교회 중 예배실에서 열렸다. "ACT PRAYER"라는 주제로 2박3일동안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미

자립교회 청소년 친구들 71명과 스텍들이 찬양,기도,말씀으로함께 어우러진 기도와 말씀잔치속에서 성령의 단비가 마음을 아름답게 적시는 여름날이었다.

첫째날 "우리지금만나" 시간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국각지에서 함께 모였기에 더욱더 새로운 친구만남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 영혼의 비타민"에는 헬스트레이너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정주호의 하나님은 만난 특별한 고백과 간단한 헬스트레이너를 이루는 시간을 통하여 몸과 마음, 영혼의 강건함을 도모하였다.

둘째날 오후에 이루어진 서울 City Tour는 서울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미션을 수행하는 "기도 러닝맨" 프로그램으로 조원들의 단합을 더욱더 견고하게 이루는 시간이 되었다. 첫째날 둘째날 모두 "말씀 그리고 최고의 사랑" 저녁집회(박요한전도사)를 통하여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영적으로 심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도에 대한 모습을 회복하고 마지막날 파송예배(박혜성 목사)를 드림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간직하며 2012년도에도 주님의교회에서 귀한 영적 만남을 꿈꾸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류은정 목사 >

사랑의 물결 <사랑나무 여름 수련회>



7월 30일 31일 사랑나무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햄과 치즈, 토마토와 잼을 넣어서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먹고, 예쁜 부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아이들과 지하철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바깥나들이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어울림 공동체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였습니다. 종합 운동장 역에서 합정역까지 21개의 정거장을 지나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갔습니다. 양화진에서의 십자가와의 만남은 평생 간직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비오는 날이었지만 빗물과 아이들과 교사들과의 사랑의 물결 속에 어우러진 한마음의 물장난은 더 큰 행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들 사랑나무 무럭무럭 사랑 속에 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2011년 향존직 선거안내

1. 선거일

1차: 10월 2일(주일) / 2차: 10월 9일(주일)

2. 피택 대상인원

장로: 10명 / 권사: 20명 / 안수집사: 20명

3. 피택 후보자의 자격

- 1) 장로 후보자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무흠 세례(입교)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서 주님의교회 등록 후 10년 이상 된 자.
- 2) 권사 후보자는 무흠 세례(입교)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만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자로서 주님의교회 등록 후 5년 이상 된 자.
- 3) 안수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으며 무흠 세례(입교)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만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하는 주님의교회 등록 후 5년 이상 된 자.
- 4) 주님의교회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 5) 피택 후보자의 공통적인 자격요건은 주일성수와 십일조 헌금을 잘 지키는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① 최근 2년 이상 교회사역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겨자씨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자.
 - ③ 12단계 성경공부 과정 중 3개 단계 이상 수료한 자.

4. 후보자 추천방법

- 1) 후보자의 추천 자격은 주님의교회 1년이상 재임한 부목사,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은퇴장로, 은퇴 권사, 은퇴안수집사에게 부여한다.
- 2) 후보자 추천은 9월 첫째 주일에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향존직별 피택 예정인원의 1/2(장로 5인, 권사 10인, 안수집사 10인)을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 3) 선관위는 1)에 의한 추천자를 취합, 피택 예정인원의 3배수를 득표순으로 작성, 9월 둘째 주일에 개최되는 정기당회에 제출한다.
- 4) 선관위가 정기당회에 제출한 명단은 당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피택 예정인원의 2배수로 조정한다.
- 5) 선관위는 당회에서 조정한 명단을 득표순에 따라 작성, 공동의회에 공표할 피택 예정 인원의 2배수 명단을 확정한다.
- 6)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후보자 인적사항(별첨 양식)을 작성, 10일 이내에 선관위에 제출한다

5. 투표참여 자격

향존직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정한다.

6. 선거일정

- 1) 10월 첫째 주일에 공동의회를 개최, 제1차 투표를 실시한다.
- 2) 제1차 투표에서 피택인원이 미달할 경우, 10월 둘째 주일에 제2차 투표 실시 (단, 후보자수는 제1차 투표의 득표순에 따라 대상인원의 1.5배수로 한다.)

7. 피택요건

장로 피택요건은 총투표수의 2/3이상으로 한다.

권사와 안수집사의 피택요건은 총투표수의 1/2이상으로 한다.

8. 검표 및 개표

검표와 개표는 선거 당일 선관위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백지투표나 무효표는 투표인수에는 계상되나 득표수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9. 선거결과 공표

투표결과는 투표를 실시한 주의 수요일에 후에 발표하며 후보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2차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는 투표를 실시한 주의 수요일에 후에 발표하며 후보를 통하여 공지한다. 피택자의 최종 명단은 10월 셋째 주일에 후보, 함즐함울 등의 유인물과 주님의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10. 기타사항

(제1항) 향존직 피택 대상자 추천일 이후 선거 마감일까지 모든 선거운동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선관위에 신고된 경우 당회의 협의를 거쳐 경고 혹은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1)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후보자가 제출한 소정양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 3) 교인으로서 은혜롭지 않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참고사항〉

주님의교회 향존직 선출은 은혜롭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하여 당회 내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고, 향존직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시무장로를 위원장으로 하여 약간 명의의 시무장로와 부목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권사, 안수집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인원의 실무위원(2011년도에는 신임권사와 안수집사)을 위촉한다. 당해 연도의 피택대상(장로, 권사, 안수집사) 및 인원수는 목회방침에 따라 선관위의 협의를 거쳐 당회에서 결정한다.

“저희 주님의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되시는 교회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경우, 금년에 4명이 시무를 마치게 된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향존직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셔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 2011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창안장로 〉

함즐함울이 15주년을 맞았습니다.

1996년 8월,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12:15)는 말씀에 따라 창간호를 펴낸 <함즐함울>이 올해로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A4판형, 흑백 4면 규모에 격월간으로 발행되었으나, 이후 판형과 발행 주기가 여러 번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함즐함울>은 앞으로도 성도의 교제를 위한 소식지로서, 더 나아가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작은 한 걸음으로, 다음호부터 새롭게 바뀐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1. 발간 지침의 제정

창간 15주년을 맞아, 취재와 편집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으며, ‘원고청탁서’와 ‘필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기고하시는 성도 여러분과도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 지면 디자인의 개편 교회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면의 디자인을 신문식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좀 더 아름답고 가독성이 있도록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3. 새로운 고정란의 신설 성도 여러분의 영적 발전을 돕고, 보다 나은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새로운 고정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합니다.

〈복음의 발자취를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된 자취를 탐방하는 글입니다. 함께 나눌 만한 유적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남들이 모르는 곳일수록 환영입니다.

〈알고계세요?〉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앙이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답을 드립니다!

〈쓴소리 단소리〉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칭찬할 만한 것, 또는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짚막하게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는 작은 칼럼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이야말로 <함즐함울>의 오늘을 이룬 가장 큰 힘이었음을 저희 편집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즐함울 편집장〉